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8

AUGUST 2016
vol.20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기림'

'기림'은 '강'이라는 순 우리말. 흐르는 강은 바다로 가는 중에 많은 일을 겪는다. 돌부리에 채이고, 강한 햇살에 잠깐 마르기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멈추는 법은 없다. 바다에 도달하는 순간, 끝은 또 시작이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사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사람들과
무한의우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갈채
왕기.힘을
수신하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을수있네

새마을운동의
청춘중에서
새터이상현 씀

당신의 내적 성장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How will you
nurture your
inner self?

만남

어느 가수는 노래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SNS 시대에 소통이 화두가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와의 소통은 나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다.

상대가 거울이 되어 나를 뒤돌아보고 내 마음의 키를 다시 확인하는 것.

누군가와의 만남은 내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조건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삶을 내 삶에 비추어 바라보기도 하고,

내 삶을 상대방의 삶에 비추어 바라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만남이라는 것을 비단 사람과의 그것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좋은 글귀, 좋은 책, 좋은 그림, 좋은 음악...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와의 좋은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일 것이다.

명상

내적 성장은 내적 각성에서 시작된다. 내적 각성을 위해 흔히들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고요히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사고와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내적 각성을 통해 존재의 근원에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다. 명상은 인간의 탐욕을 벗고, 넓고 평화로운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그것이 영원한 자유임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다. 명상이 내적 성장을 돕는 좋은 통로가 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특별한 행위로 생각한다. 바쁜 일상에서 명상을 위한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여기기도 한다. 어느 스님이 말했다. 명상이란 것은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걸어가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명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천천히 행동하기, 천천히 걷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마시기 등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오롯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은 명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부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는 늘 우리들을 따라다닌다. 공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우려는 욕망, 공부하려는 욕망이 오로지 학벌, 거액의 연봉, 안정적인 직장 등 진짜 공부의 의미와는 떨어진 목표들과 연결된다는 데 있다. 진짜 공부란 학교에서 나이에 맞게 수준별로 제공되는 교과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으로 몸을 단련하고, 일상을 바꾸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기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상이 공부가 되고 삶이 공부가 될 수 있다. 순수한 삶을 위해 스승을 찾아다니고, 책을 읽고, 고민을 나눌 벗을 찾아다니는 일, 그것만큼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올라탔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한쪽에 서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망설인다. 물건을 팔려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섯 살 딸을 둔 ○○○ 아빠입니다. 제 딸은 지금 백혈병에 걸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딸의 이름은 ○○입니다. ○○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제 딸에게 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그들의 기도가 남자의 딸 아이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분명 치유의 힘을 느꼈을 것이다. 내적 성장은 내적인 평화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며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라는 말이 있다. 타인을 향한 기도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성숙한 삶으로 이끈다.

만약 지금, 행복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눈을 감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8월호 vol.20
MONTHLY MAGAZINE. AUGUST 2016



08 행복을 주는 사람 | 황영목 스마트폰 앱 강사

인생의 후반, 그간 쌓아온 지식과 삶의 노하우, 일상을 다른 이와 나누며 사는 일은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올해 84세 황영목 씨는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며 삶을 나누고 있다. “끊임없는 배움으로 삶의 에너지를 더 한다”는 그를 만나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2막에 대해 들어봤다.



I4 행복메신저 | 이태숙 KEB하나은행 대전도시철도공사출장소 차장

이태숙 KEB하나은행 대전도시철도출장소 행복파트너의 손님에 대한 신조는 명확하다. 처음과 끝이 한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처음 손님을 유치할 때는 워트지 해 줄 것처럼 하다가 유치가 끝나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처음부터 끝이 한결 같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30 Do! Dream | 몇 초! 몇 분! 시간의 마법

‘빠름 빠름 빠름~’ 빠름의 시대다. 빠름에 질린 사람들은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빠름은 이 시대의 화두로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일까. 몇 초니 몇 분이냐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가 강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기도 한다. 바쁜 일상, 우리의 삶을 스피드하게 가이드 하는 ‘몇 초, 몇 분’의 다양한 기술과 법칙, 무엇이 있을까.



36 경제 이슈 |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반기 국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영국의 EU탈퇴(Brexit) 이후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의 확산 가능성, 중국발(發) 충격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능력, 국내 구조조정 압력과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강도 등 하반기 경제 리스크를 전망해본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의 내적 성장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이 젊게 사는 비결”
INFO GRAPHY	●
I 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노인들의 취업 및 일자리 동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8월호.vol.20 (통권 20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6년 08월 8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부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행복미래설계	●
I4	행복메신저 “시작과 끝이 한결 같은 서비스로 손님의 마음 사로잡았죠”
I6	H씨의 행복설계 잘 준비된 3층 연금과 금융자산의 안정.적 운용으로 노후 준비 가능
20	지식 플러자 - 법률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22	지식 플러자 - 상품소개 연금저축보험
24	Do! Dream 몇 초! 몇 분! 시간의 마법
26	Anti aging 건강을 통째로! 매크로바이오틱
28	Alone, together 재미있고 편리한 자판기 시대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전략
경제 TREND	●
36	경제 이슈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40	부동산 이슈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이슈
GLOBAL	●
44	지구인 이야기 덴마크, 로봇 복지에 주목하다
FUTURE	●
46	은퇴, 버킷리스트 느린 삶을 되찾는 도예하는 삶



황영목 • 스마트폰 앱 강사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이 젊게 사는 비결”

인생의 후반, 그간 쌓아온 지식과 삶의 노하우, 일상을 다른 이와 나누며 사는 일은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올해 84세 황영목 씨는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며 삶을 나누고 있다. “끊임없는 배움으로 삶의 에너지를 더 한다”는 그를 만나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2막에 대해 들어봤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저는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며 배워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황영목 씨는 80대의 나이에도 남양주노인복지관, 평생교육관 등에서 스마트폰 앱 활용법에 대해 강의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인생 2막을 적극적으로 설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20여 년 전 4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했다.

“교직에 몸담는 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못 가졌던 터라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우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마음먹고 국내외 여행을 비롯해 악기 배우기, 운동, 서예, 그림 등에 도전했죠.”

그는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확장시켰다. 한자 교실, 예절 교실, 유치원 동화 구연, 출판사 교정업무, 어린이신문 칼럼기고, 평생교육원 강사 등 기회가 되면 망설임 없이 배운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도전했다.

인터뷰 중 그는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선 교재로 쓰기 위해 정리한 최신 시사용어, 맞춤법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일이지만 설렁설렁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시간나는 대로 강의 교재로 활용할만한 자료를 찾아 모으며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한다. 또 강의에 흥미를 주기 위해 미술을 배우기 시작해 아마추어 미술사로도 활동했다.

스마트 폰으로 인생 2막 채운다

이러한 배움과 나눔에 대한 열정은 스마트폰 강의로 확대됐다. KT에서 실시한 스마트스쿨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처음 접한 그는 현재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전파하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손쉽게 스마트폰을 다루잖아요. 단지 노인이란 이유로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발달된 문명은 만끽해야 하고 노인이라

도 그런 행복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배워놔야 손자들과도 소통이 되고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어요.”

스마트 폰 교육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사전앱(APP)을 활용하니 들고 다니던 무거운 전자사전에서 해방됐다. 외국에 사는 자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QR코드를 활용하고, 길을 찾을 때는 네비게이션 앱도 활용한다. 또 지하철 노선 검색과 인터넷 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도 늘어났다. 호기심은 물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에게 스마트폰은 배움의 대한 욕구를 단숨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 좋은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고급 승용차를 갖고도 안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이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스마폰 활용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른 노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기에 보람도 크다. “수업을 통해 전에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버거워하던 노인들이 손녀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노래를 감상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큼니다. 가르쳐준 새로운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수강생들을 보면 내 마음도 즐겁고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하며 사는 게 행복

행복해 보이는 그에게 노년의 행복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을 때 느끼는 기쁨처럼 아주 평범하죠.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만족을 느끼고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족하냐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의 질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든 육체를 핑계 삼아 한 없이 나태해지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고 기죽지 않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걸 써먹든 안 써먹든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 아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도 “더 배우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다.

또 그는 나눔도 강조한다. “배운 것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일만큼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의 배움, 나눔 열정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일까 궁금했다. “큰 욕심나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적어도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누릴 수 있는 만큼은 꼭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즐겁게 배우고, 봉사하는 인생으로 일생 매듭짓고 싶어

나이를 의심할 정도로 에너지 가득함의 비결은 단연 건강. 그만의 건강 비법이 궁금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허리둘레와 몸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 남들과 다른 뭔가를 굳이 찾아내자면 ‘소식(小食)’을 꼽았다. 그리고 배움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에너지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건강한 몸과 에너지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싶단다.

또 “즐겁게 배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일생을 매듭짓고 싶다”며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더 없는 축복이라 생각하며 생애 마지막까지 긍지를 갖고 더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누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년의 즐거운 삶을 위해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 상태가 오늘하고 내일이 확연히 다른 게 느껴져요. 이를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누릴 수 있는 만큼은 꼭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목 강사가 추천하는 앱(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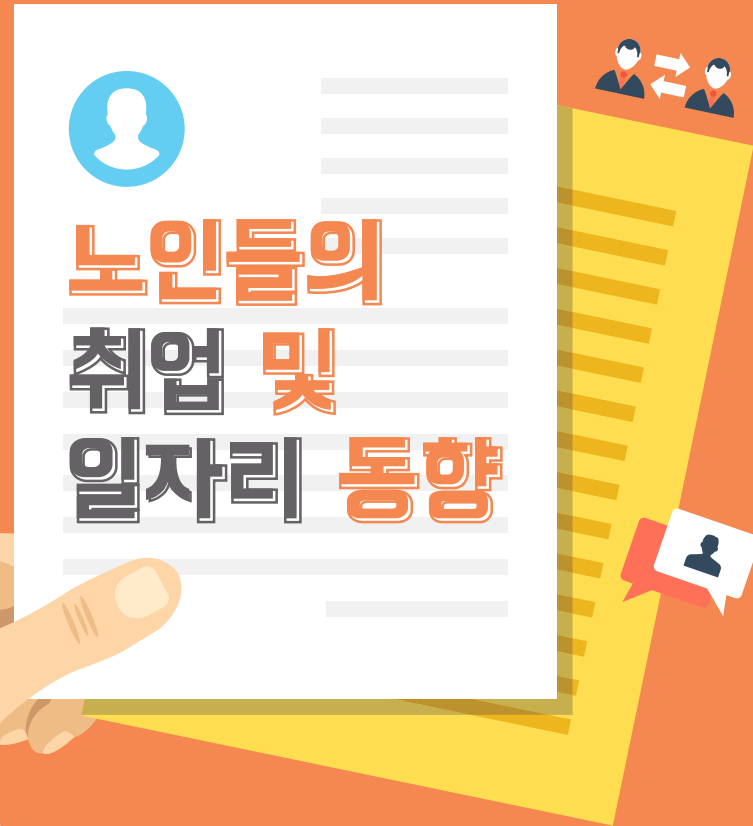
• 에브리싱(Every sing)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녹음도 가능하다. 일반 노래방 기계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이 담겨 있다. 텔레비전에 연결할 수도 있어 노래방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데 좋다.

• 비바비디오(Viva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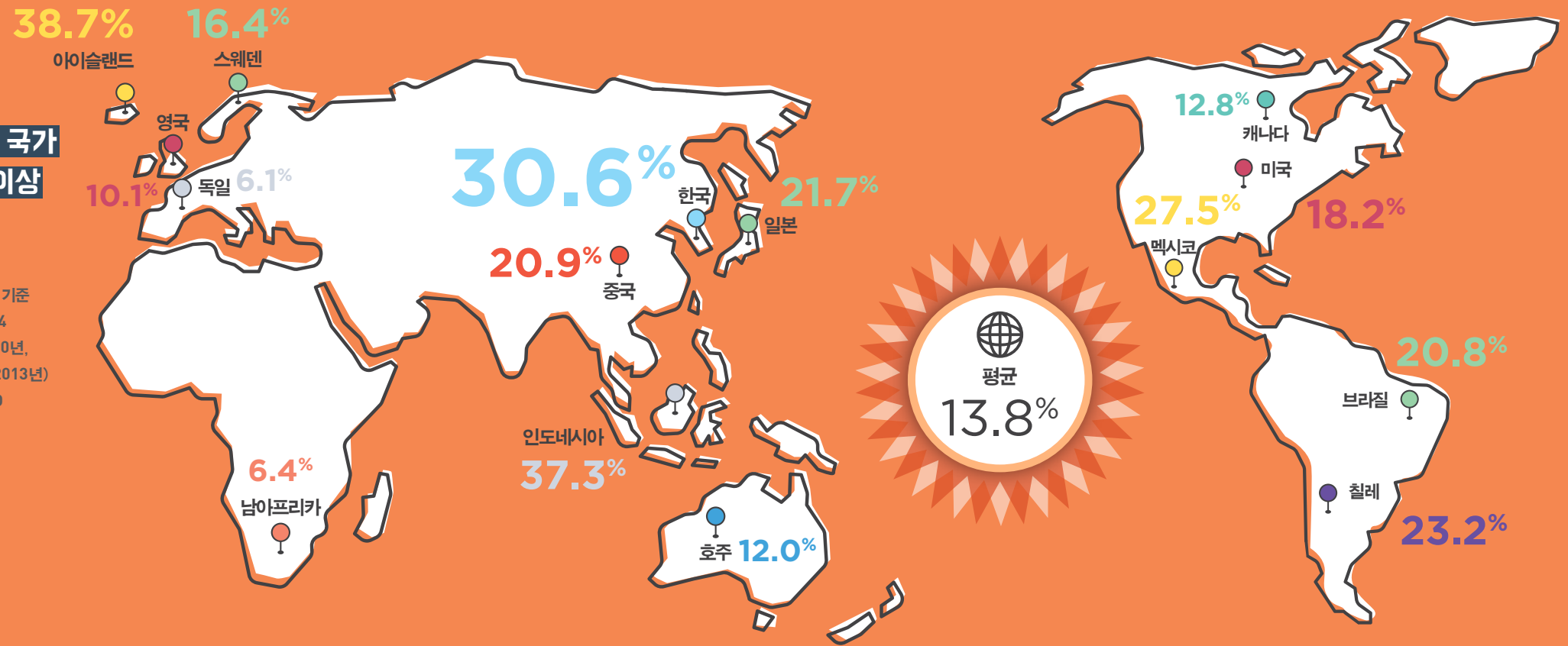
전 세계 5,000만명이 사용하는 사진 편집용 앱.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엮고 음악을 깔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사진 크기를 조절하고 문구 등도 삽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취업률은 OECD 국가중 3번째로
높은데 대부분 생활비 때문에 자영업이나 임시직에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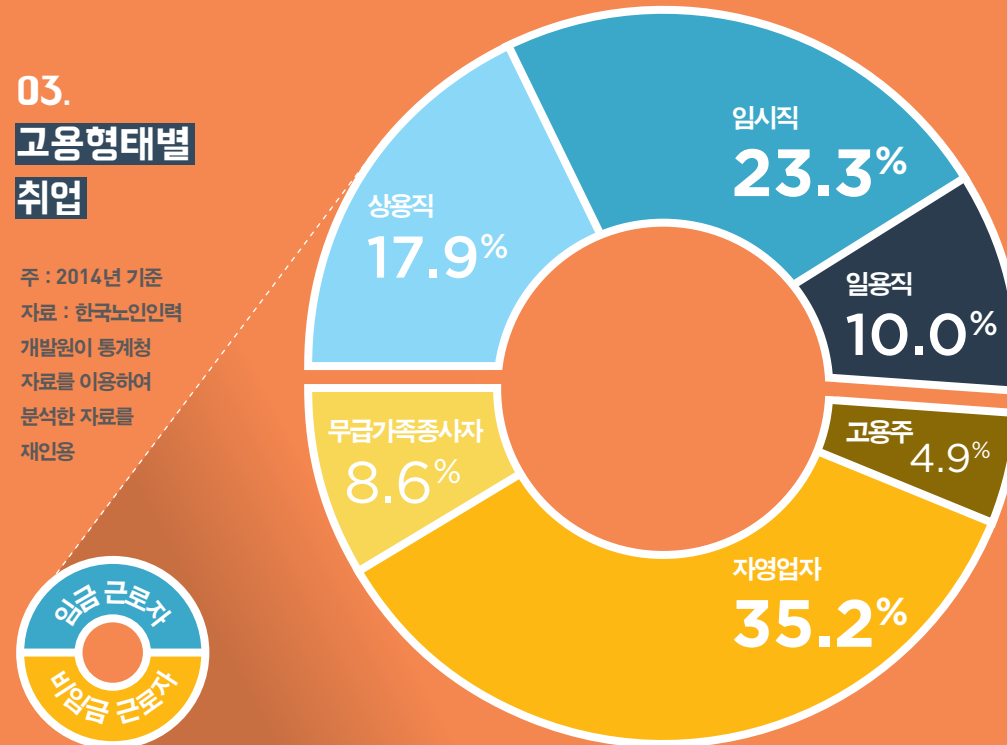
01. OECD 국가 65세 이상 취업률

주 : 2015년 기준
(브라질 2014
년, 중국 2010년,
인도네시아 2013년)
자료 : OECD



03. 고용형태별 취업

주 : 2014년 기준
자료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재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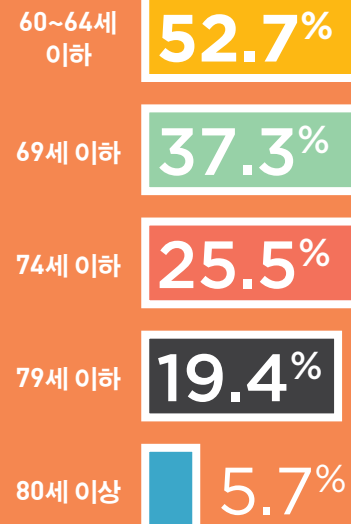
04. 취업을 원하는 이유

자료 :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02. 고령자 연령대별 취업률

자료 : 통계청
'2014년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시작과 끝이 한결 같은 서비스로 손님의 마음 사로잡았죠”

이태숙 행복파트너
KEB하나은행 대전도시철도공사출장소 차장

이태숙 KEB하나은행 대전도시철도출장소 행복파트너의 손님에 대한 신조는 명확하다.

처음과 끝이 한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처음 손님을 유치할 때는 뭐든지 해 줄 것처럼 하다가

유치가 끝나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처음부터 끝이 한결 같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손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본부에서 근무하다 현재 출장소로 발령을 받고 와보니 지하철 역장 일부가 개인사업자이고, 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 정산하거나 타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를 하나은행에 유치하기 위해 방문해서 챙겨드린 결과, 지금은 역장님 모두 저희 하나은행의 손님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만큼 개인사업자로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설명해 드리고, 역장님이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미리 준비서류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어요. 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먼저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지요.”

그 결과 현재는 지하철역 사업자통장을 비롯해 카드,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 직원 급여이체 등 모든 부수거래를 하나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체계화시켰다.

“물론 모든 역을 챙기기 위해서는 매달 손이 많이 갑니다. 전체적인 케어를 해야 하는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또 지하철역 자금 사이클을 꿰뚫고 있어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구요. 한 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다른 곳へ가서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손님과 탄탄한 신뢰를 쌓는 일만이 지속적인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시외영업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자금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전 영업점의 손님이셨는데, 여유자금을 예치할 만한 상품을 요청하셔서 당행 후순위채 상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잊지 않고 상담하러 찾아오신 손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TIP

1. 보장성 보험을 꼭 가입하자

현재를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한다. 살았던 세월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될지 모른다. 적절한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맨 몸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위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2.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해라

은퇴 이전에 부채는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주택이나 최고한도까지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비합리적이다.

3. 3층 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3층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중심),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특히 3층보장제도의 완성은 개인연금으로 일찍 시작할수록 부담이 적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행복메신저
TIP

잘 준비된 3층 연금과 금융자산의 안.정.적 운용으로 노후 준비 가능

공기업에 재직 중인 H씨(만 40세).

H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2명의 어린 자녀들에게 들어갈 미래 지출이 걱정이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들 부부는

향후에 자녀들에게 발생할 지출 등을 생각하면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정적 자산 운용 방안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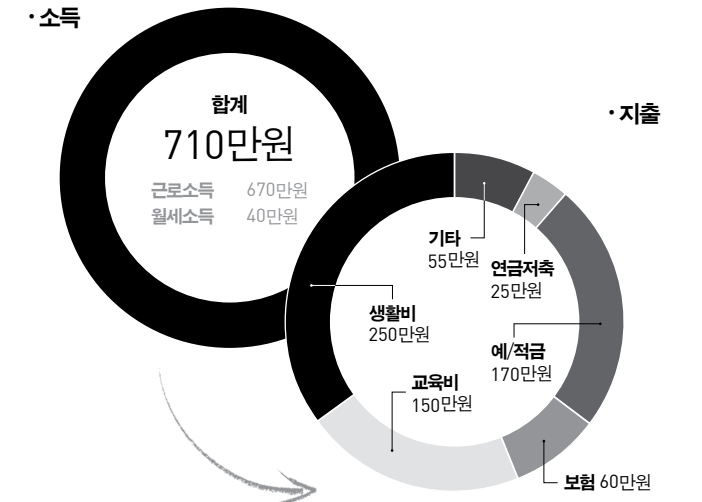
어린 자녀들에게 들어갈 미래 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상존

공기업에 재직 중인 H씨(만 40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인(만 33세)과 슬하에 5세와 2세 자녀 2명이 있다. 현재 H씨는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 문제로 인해 회사 근처 지역에 2.5억원 상당의 전세에 살고 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아파트는 세를 주었으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고 있다.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1억원, 연금저축 4,000만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맞벌이를 통해 월 670만원의 근로소득과 40만원의 월세수익이 있는 반면 매월 생활비 250만원, 교육비 150만원, 보험 60만원, 예/적금 170만원, 연금저축 25만원, 기타비용 5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H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자녀들이 아직 어리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 향후에 자녀들에게 발생할 지출 등을 생각하면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2.5억 원
	전세자금	2.5억 원
	예/적금	1억 원
	연금저축	0.4억 원
• 부채	보증금	0.3억 원
• 순자산		6억 1,000만 원



55세에 부부가 함께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50만원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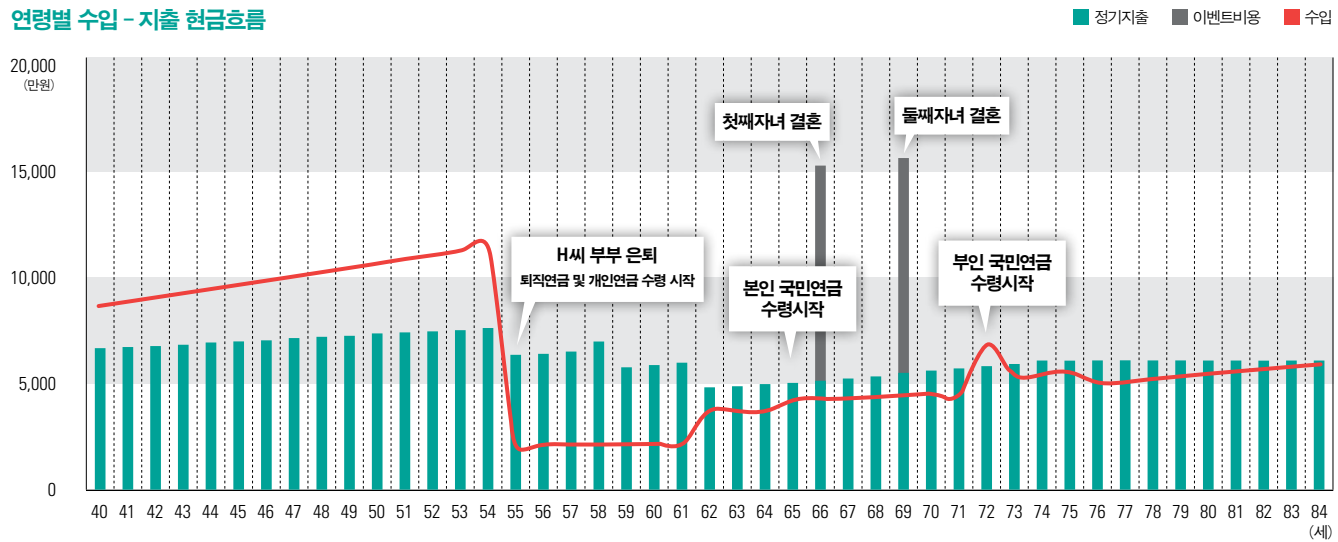
H씨는 은퇴시기를 5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인 또한 H씨의 은퇴시기에 맞춰서 은퇴할 예정이다. 현재 H씨 부부는 생활비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 부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가 각각 65세부터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부부합산으로 55세부터 10년간 월 246만원씩 수령할 계획이며, 개인연금은 55세부터 20년간 51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H씨 부부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을 살

펴보면, 은퇴 직전인 54세까지는 지속적인 여유자금이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급 전인 64세까지는 개인연금과 H씨의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62세가 되면 부인의 퇴직연금 수급으로 수입이 추가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자금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며, 자녀 결혼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많은 수준이 계속됨을 알 수 있다. 결국 55세 이후 구간에서는 기존에 확보해 둔 금융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1)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금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은퇴 시기인 55세를 기준 시점으로 할 때 현재부터 H씨 은퇴전인 54세까지 약 3.8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확보되는 반면, 은퇴 후 부족자금은 약 9.7억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총 5.9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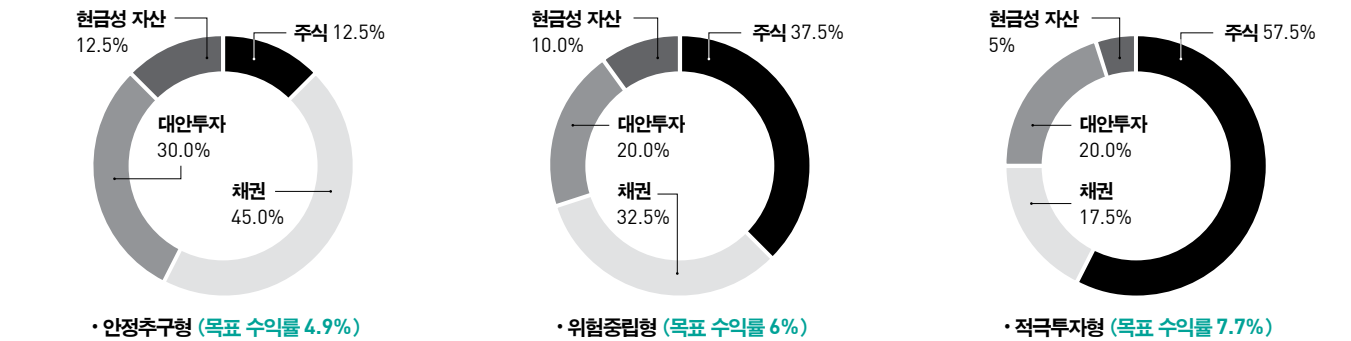
전세자금의 활용과 더불어

금융자산의 '안정 추구형' 운용 필요

앞서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이후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H씨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 향후에 교육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H씨 부부는 직장 문제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은퇴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고 전세자금으로 묶여있던 자금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한다.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목돈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기 상 H씨 부부가 은퇴하고 연금 수급 및 금융자산으로 생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55세 이전까지는 여유 자금이 계속 확보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며, 55세 이후에 전세자금을 추가로 운용하여 미래 목돈 지출에 대비한다. 기존 노후 준비 및 지출 계획

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자산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금융자산을 매년 3.70%의 수익률로 운용하면 된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4.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바 있으며, 최근 다시 안정화되고 있으나 미(美)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로 목표수익률을 높이려 하기 보다는 안전자산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와 같은 금융자산 운용이 이뤄질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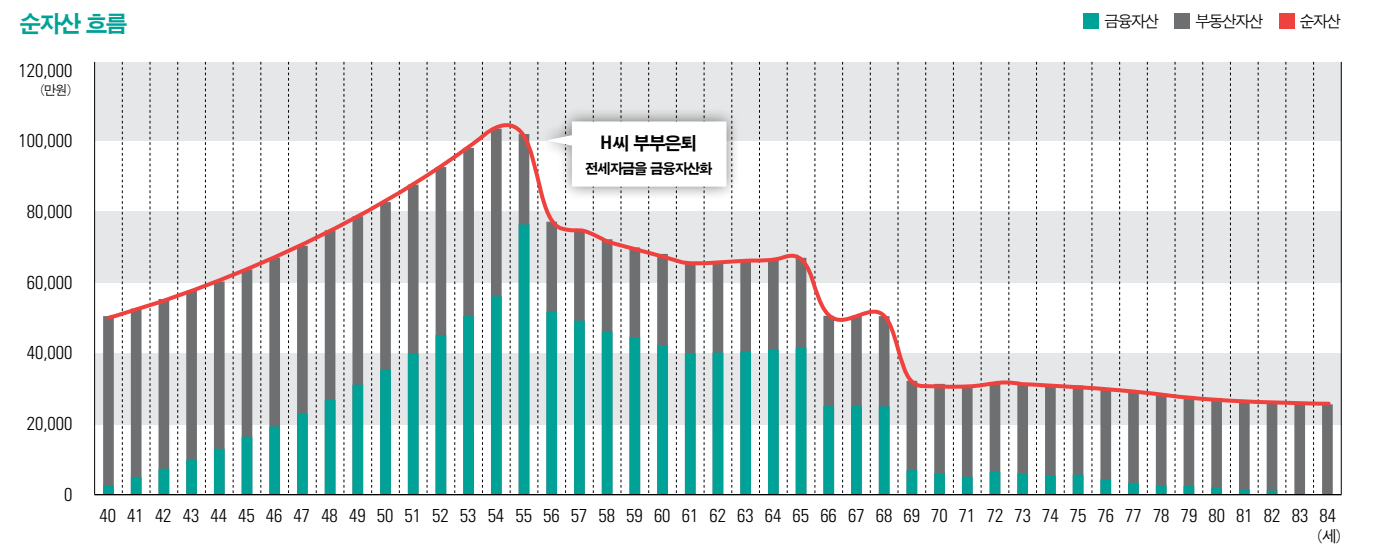
은퇴 이후 목돈 지출을 감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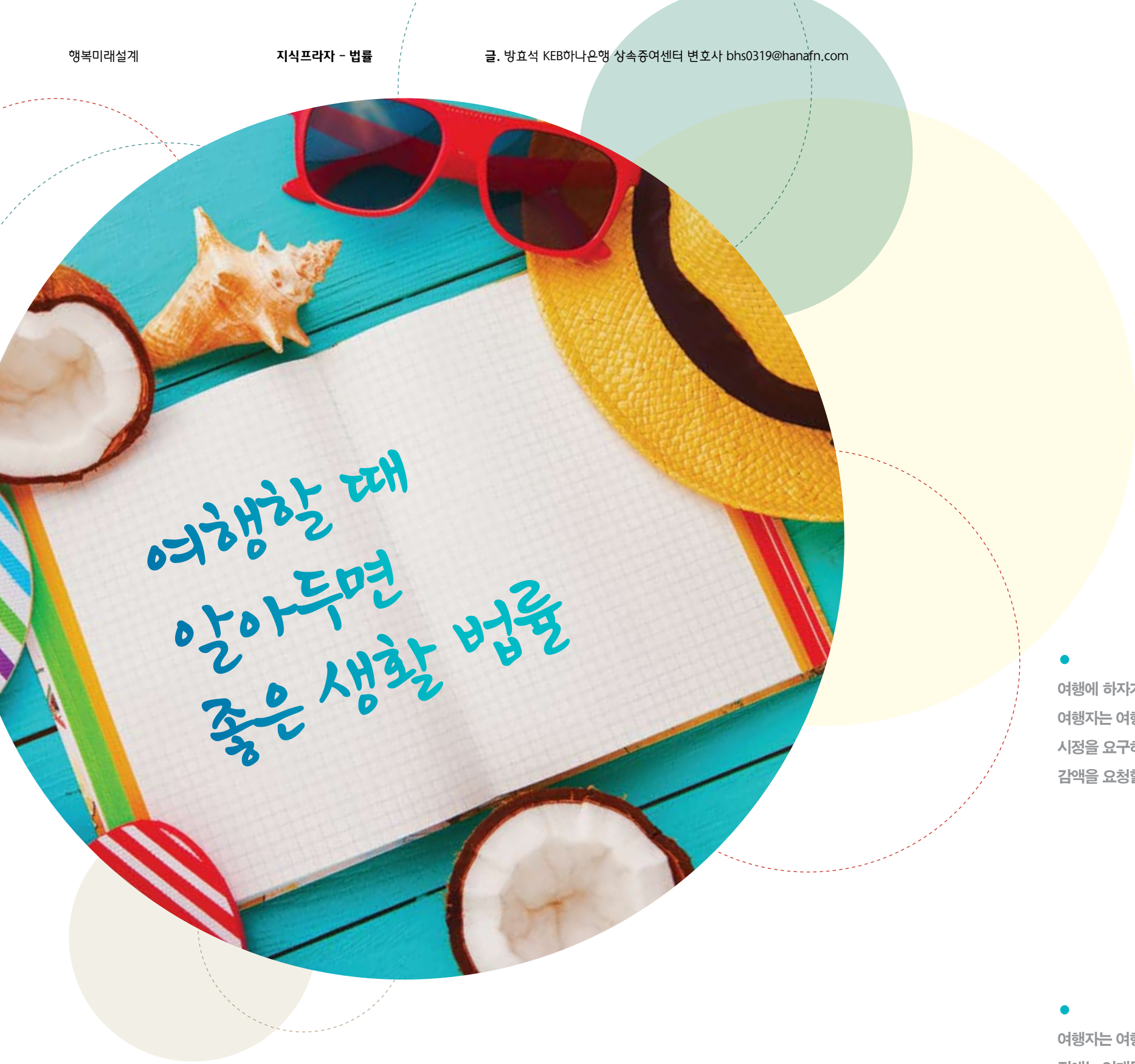
매년마다 인생 계획에 따른 노후 준비 점검 필요

H씨 부부의 경우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후 준비가 쉬운 편이다. 다만 아직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며 부부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및 결혼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H씨 부부가 55세가 되는 해에 동시에 은퇴하는 것을 가정하고 노후 준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H씨가 55세가 될 때까지 맞벌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중에 한명이 그 전에 퇴직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의 운용 방법 및 연금수급 계획을 변경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매년마다 향후 인생 계획을 세워보고 이에 맞춰서 노후 준비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순자산 흐름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가 예약 당시 여행사의 설명과 현지 서비스가 달라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2월 여행계약에 관한 조문이 민법에 추가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제 여행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하자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음.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다만, 원칙적으로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여행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 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약 400만명 이었던 해외여행객 수는 2015년 거의 2,000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여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2월 여행계약에 관한 조문이 민법에 추가되었고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스스로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여행사에서 미리 정해준 일정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숙박시설, 음식 등 선택 조건에 따라 여행 스타일이나 비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간혹 현지에서 예상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쌓이기도 한다. 처음 예약한 호텔 대신 낮은 수준의 호텔이 대체 예약된 경우, 스위트룸을 예약했는데 일반 룸을 사용하게 된 경우, 최고급 아침식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비위생적인 식사가 나온 경우 등 여행사의 설명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배상해 줘야 한다. ”

하자 시정 요구 또는 대금 감액 요청

앞선 상황들은 모두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개정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사에 하자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예약한 호텔보다 낮은 수준의 호텔이 예약된 경우 여행자는 ❶ 원래 호텔의 예약을 요구하거나 ❷ 적어도 대등한 수준의 호텔로 예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❸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비용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으며 ❹ 만약 이를 여행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늦어도 여행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 간혹 하자가 지나쳐 여행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고 여행사는 여행대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미술관 방문을 목적으로 한 여행에서 여행사가 그에 따른 여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여행 중 미술관 방문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여행 시작 전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배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여행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행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국내여행 표준약관’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표준약관에 따르면 ❶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❷ 질병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데 그 간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여행사에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2015년말 기준으로 적립규모가 108조원에 이르는 등 퇴직연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상품의 취급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로 구분되어 적립 · 운용되고 있다. 그중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의 70%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이어 무배당 연금저축 보험도 출시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우선 연금신탁과 같이 납입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예금과는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의 수령시에는 타 업권과 달리 종신형태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의 경우는 일정기간을 확정하여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확정기간 뿐만 아니라 종신의 형태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 인류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 장수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신형태의 연금수령은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연금저축보험이 그동안 주로 유배당형태로 출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하나생명, 삼성생명 등을 중심으로 무배당 형태의 연금저축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비,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궁극적으로 노후에 보다 높은 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금저축보험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는 노후준비자라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도 받으면서 장기 저금리 기조하에서 보다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장수위험까지 커버되는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노후 준비목적,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 및 방법, 예정 사업비, 공시이율, 해지시 환급률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여야 한다.

연금저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금융사	보험	은행	증권(자산운용사)
납입방법	정기납입	자유납입	자유납입
적용이율	공시이율	실적배당	실적배당
원금보장여부	원금보장	원금보장	미보장
예금자보호	적용	적용	미적용
연금수령방법	확정기간형 및 종신행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상품유형	금리연동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안정형, 채권형

올해는 **꼭** 놓치지 마시고!

매년 최대

660,000원을 챙기세요!

총급여액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연 400만원 납입 가정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기 준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절감액	월납입액(연간납입액)	세금절감액
660,000 원	33.4만원 (400.8만원)	528,000 원
594,000 원	30만원 (360만원)	475,200 원
396,000 원	20만원 (240만원)	316,800 원
198,000 원	10만원 (120만원)	158,400 원

* 당해년도 납입한 보험료(연금저축계좌, 연간 400만원 한도)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

* 위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받고, 노후준비까지 든든하게!

- ▶ 공시이율 2.9% (2016.07. 현재)
- ▶ 장기납입보너스 0.5% 가산
- ▶ 행복한 보너스 0.5% 가산
- ▶ 최저보증이율 (10년 이내 2.0%, 10년초과 1.0%)

1. 만 55세 이후
2.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3. 연금 수령한도 이내

연금수령

종신연금형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확정연금형
(5년, 10년, 20년, 100세 확정)

+ 장기납입보너스 적립

10년 이상 기본보험료 완납시
121회차 이후 매월 기본보험료(납입시)의
0.5%가산 적립(장기납입시 환급률 증가)

+ 행복한 보너스 적립

매월 기본보험료(납입시)의 0.5%를 가산 적립
다문화가족/장애인본인/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배우자&자녀)
※증빙서류 제출시

해지환급금

기준 : 40세, 45세 연금납입, 정기납, 월납, 보험료 3만원, 2016년 7월 공시이율 2.9%(연복리)

납입기간	납입금액(원)(A)	보험료납입회차	보험료납입회차	보험료납입회차	보험료납입회차
1년	4,080	3,762	92.21%	3,781	92.67%
3년	12,240	11,849	96.81%	12,014	98.15%
5년	20,400	20,260	99.31%	20,729	101.61%
7년	28,560	29,010	101.58%	29,954	104.88%
10년	40,800	42,915	105.18%	44,933	110.13%
15년	61,200	65,414	106.89%	73,150	119.53%
20년	81,600	89,060	109.14%	105,701	129.54%
25년	102,000	113,912	111.68%	143,255	140.45%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제출비용(전환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제출비용(해당 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어 반환되는 금액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 장기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현재보통이율, 현재주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연금공시이율(3.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년 경과기간동안 계속할 것을 선택)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회차 보험료 납입회차에 계약제출비용, 신계약금 등 다른 추가납입 등이 발생한 경우 장기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금액은 기타 소득세 등 관련 세제에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장기 예시는 연금계사전환까지의 기간입니다.
* 장기 예시는 연금계사전환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한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잘못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전단은 고액의 이예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080-3488-7000

몇 초! 몇 분! 시간의 마법

‘빠름 빠름 빠름~’ 빠름의 시대다. 빠름에 질린 사람들은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빠름은

이 시대의 화두로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일까. 몇 초니 몇 분이니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가 강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일단 넣어두자. 하루에 몇 초, 몇 분 할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면 말이다.

바쁜 일상, 우리의 삶을 스피드하게 가이드 하는 ‘몇 초, 몇 분’의 다양한 기술과 법칙, 무엇이 있을까.

첫인상을 좌우하는

5초의 법칙

•

첫인상 전문가로 알려진 보험 세일즈 매니저 한경 씨가 펴낸

〈첫인상 5초의 법칙〉에서는 “첫인상은 단 5초 만에 결정 된다”고 말한다.

순간성이 바로 첫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첫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작용하는 것들은 시각이 55%, 청각이 35%, 언어가 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의상이나 표정, 자세, 몸짓, 헤어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면

시각과 청각적 요소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좋은 인상을 주는 외모라는 것은 ‘밝은’, ‘호감 가는’, ‘단정한’ 외모를 말한다.

자심감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또렷한 눈빛과 함께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는 미소도 중요하다.

참고도서 〈첫인상 5초의 법칙〉

하루 10분

독서가 주는 힘

•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에 매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엔 지하철에서 줄기 일쑤이고 여유가 좀 생길라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10분 독서는 기본적인 독서근육을 만들어주는 습관으로 유용하다.

〈하루 10분 독서의 힘〉에서는 10분 독서를 10분 준비, 10분 몰입, 10분 정리로 나눈다.

• 10분 준비 : 자기 암시의 시간, 책을 읽고 바라는 변화를 상상하고 말하고 책 앞장에 기록해 둔다.

• 10분 몰입 : 치열하게 책에 집중하는 시간, 필기구를 쥐고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며 밑줄이나 동그라미, 별표시를 한다.

• 10분 정리 : 하루 계획의 시간, 책을 다시 훑으며 표시된 부분을 읽고 기록한다.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 마지막에 항상 ‘할 수 있다.’ ‘이루어짐’ ‘된다 된다 나는 된다’식의

긍정적인 문구를 꼭 기록하며 마무리 한다.

시간은 짧아도 늘 습관적으로 10분 독서를 하다보면 독서 몰입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참고도서 〈하루 10분 독서의 힘〉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3분

•

첫인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첫인상을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까지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이 힘이다〉에서는 호감을 얻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3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악수를 할 때 반드시 눈을 마주친다.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다.

이 방법은 전에 한번 만난 사이라고 해도 다시 한 번 기억나게 한다.

둘째, 상대의 관심사를 질문한다. 상대에게 집중된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와 관련된 관심사에 관해

질문하여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는 애정을 표시해 준다. 특히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3분 이내 격려의 말을 건넨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시작하여

3분 내에 상대의 좋은 이미지와 장점, 외부에 나타난 장식 소품 등에 관해 칭찬과 격려를 한다.

넷째, 상대방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인지하여 상대를 좋아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

참고도서 〈사람이 힘이다〉

건강을 통째로! 매크로바이오틱

제철 재료부터 껍질까지 음양 조화에 맞게 조리함으로써 식재료가 가진

자연그대로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매크로바이오틱(Macrobiotic). 무가공, 유기농, 통음식 먹기를

권장하는 매크로바이오틱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대가 사과를 한 입 깨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라.

‘너의 씨앗이 내 몸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너의 미래의 싹이 내 심장 속에서 피어나리라.

그리하여 너의 향기가 내 숨결이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계절을 누리리라.’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더 맛있는 식당을 찾아 나서고, 더 맛있는 요리법을 따라하는 시대. 화려한 맛과 레시피는 몸과 마음 이 허전한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먹는 쾌감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필요 이상으로 ‘더 먹 고’ 있다. 덕분에 흔치 않던 현대병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되도록 조리하지 않는다’는 매크로바이오틱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제철 음식, 유기농 농산물, 현미 먹어야

매크로바이오틱은 macro(큰, 위대한), bio(생명), 그리고 tic(방법, 기술)의 합성어로 일본의 장수 건강법에 유래한 조리법이다. 제철 재료를 뿌리부터 껍질까지 음양 조화에 맞게 식재료가 가진 에너지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지칭한다. 매크로바이오틱에서는 무가공, 유기농, 몸에 좋은 통음식 먹기를 권장한다. 가공식품, 특히 설탕이 첨가된 식품은 철저히 피하고 유기농 곡류와 채식을 중심으로 식사할 것을 권한다. 매크로바이오틱의 자연식단 지침 중에는 ‘청량음료, 착색식품, 캔류와 병류 등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는다’,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온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항목들이 있다. 원칙적으로 전체 식생활의 20~30%를 통곡물로, 생채소와 발효채소, 익힌 재소를 40~60%, 콩류 5~10%, 나머지 제철 과일과 해조류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현미다. 영양과 생명력이 풍부한 현미가 매크로바이오틱 식단에 주로 활용된다. 양념으로는 설탕은 전혀 쓰지 않고, 소금은 좋은 것으로 소량 사용한다.

매크로바이오틱 9가지 원칙

1. 통식품 - 현미, 여러 곡류와 콩, 채소, 과일처럼 모양이 통째로 보존되어 있는 식품을 말한다.
2. 자연적인 음식 - 인공 조미료, 감미료, 유전자 조작(GMO) 식품 등을 제외한 자연 그대로가 좋다.
3. 신선한 음식 -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오래 보관하지 않은 음식이 생명력이 있다.
4. 유기농 음식 - 자연식에서는 무농약을 원칙으로 한다.
5. 로컬 푸드(Local Food) - 먼 거리에서 온 식품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자란 식품이 좋다.
6. 계절 음식 - 제철에 맞는 식품이 계절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7. 전통적인 식품 -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식품이 몸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8. 밸런스가 맞는 음식 - 산성과 알칼리성의 밸런스, 영양소 밸런스, 맛의 밸런스, 조리법의 밸런스를 맞춰라.
9. 순화면서도 입에 맞는 음식 - 우리 몸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음식을 보는 순간 소화 흡수 기관이 가동하기 시작한다.

자료 출처 : 문숙의 자연식(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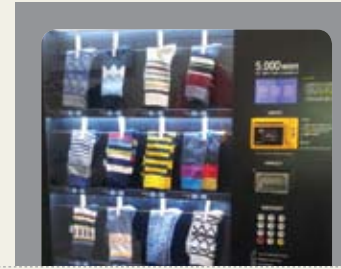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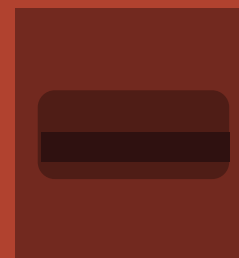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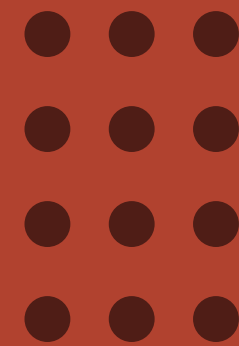


재미있고 편리한 자판기 시대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자판기들이다. 굳이 사람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이 있고, 인건비가 비싼 나라인 만큼 자판기의 이용이 더 활성화돼 있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색 자판기들이 많아 여행의 재미를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판기, 편리하고 재미있는 자판기를 소개한다.

질문! 우리나라 최초의 자판기 커피는 언제 먹게 됐을까?

1978년 3월 22일이라고 한다. 1970년대 다방 등이 전국 곳곳에 생기면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급기야 1978년 3월 22일 종각, 시청앞, 서울역 등 3개소에 최초의 '커피 자판기'가 설치됐고, 가격은 100원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1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을 것이다. 이후 자판기 수요가 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판기 400여대를 수입해 인파로 붐비는 장소에 하나 둘씩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장 흔한 것이 커피나 음료자판기지만, 양말, 신발, 라면, 우산을 비롯해, 신선한 계란과 시금치 등 신선식품 자판기까지, 편리하고 재미있는 자판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분에 따라 바꿔 신는 '양말자판기'

다양한 양말 자판기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 몇 년 전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한 복판에 설치된 양말자판기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각양각색의 양말들이 전시된 자판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동대문 두타에도 양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 3,000원으로 5,000~9,000원 사이의 양말을 득템할 수 있어,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stylesha.re/uiui245/8653677>

아침드셨나요? 계란프라이 자판기

1990년대 초 한 한국인이 계란프라이 자판기를 개발했고, 이를 유럽의 박람회출품을 했다. 아침 식사로 스크램블에그를 즐겨먹는 유럽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딱 어울리는 터라,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로 특허권 인수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자는 특허권 인수를 거절하고 직접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사진출처: <http://cafe.naver.com/cjsdusdmltpkd/44120>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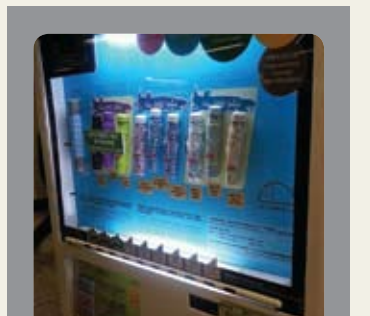
롯데기공은 2010년 일본 수출용 아이스크림 자판기 20대를 첫 출고 했다. 롯데기공은 일본 SANDEN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아이스크림 자판기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수출한 아이스크림 자판기는 아이스크림, 봉지 등에 포장된 총 12종의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내용물을 최대 308개까지 적재 가능한 대용량 자판기다. 또 내부온도를 영하 23도에서 영하 30도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출처: 롯데기공 홈페이지

"구두를 신고 나와도 괜찮아", 신발 자판기

구두를 신고 왔는데, 걸다 보면 발이 너무 아파서 플랫슈즈 생각이 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여성을 위한 자판기가 있다. 바로 신발 자판기. 국내에도 곳곳에 설치가 돼 있다. 파주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설치된 신발 자판기는 이런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다. 문제는 가격,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의 자판기라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만한 가격에 팔아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신발의 텍 가격은 49,000원이지만 구매가는 15,000원이다. 한마디로 아울렛 가격이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enrud03?Redirect=Log&logNo=220717432265>



소나기에 놀라지 마세요, '우산자판기'

장마철이나 여름철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우산! 바쁜 아침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직장인들에게 '어떤 자판기가 생겼으면 좋겠나요?'라는 설문조사 결과 '우산자판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지하철이나 정류장 등에 꼭 필요한 것이 우산이다.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우산자판기는 국내에서는 자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유럽여행 때 자주 눈에 띈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ildotspark?Redirect=Log&logNo=70167965150>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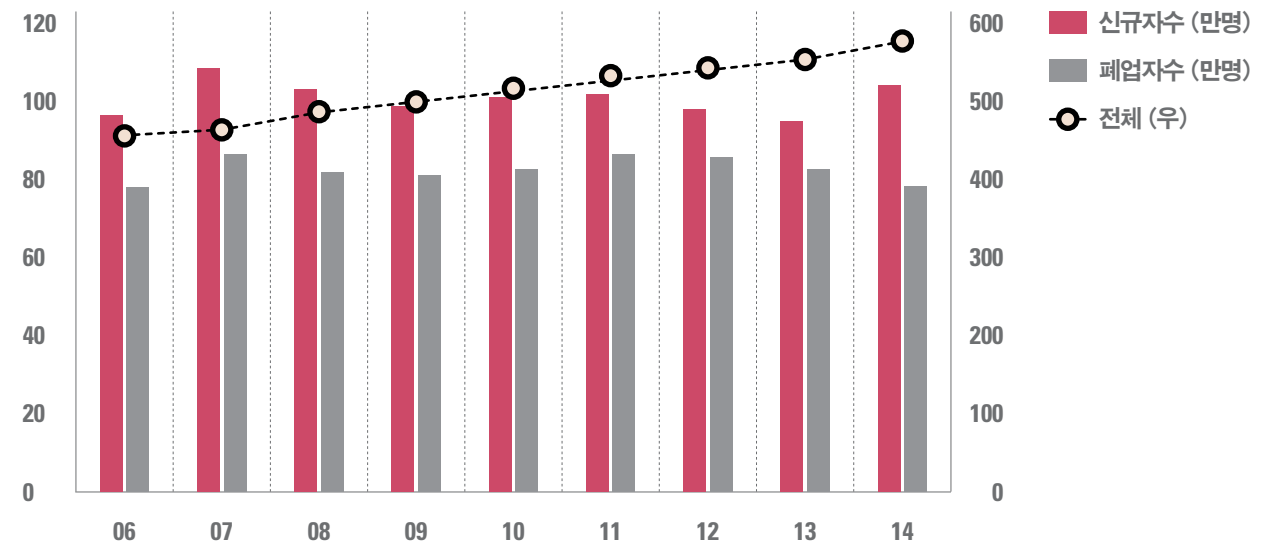
최근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며 노후준비도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자영업자의 효율적인 노후
준비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뿐 아니라 명예퇴직, 청년실업 증가에 따라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개인사업자 수는 2010년 500만명을 돌파한 후 2014년 기준 56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경쟁과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54%가 2년내, 62%가 3년내, 69%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며 노후준비도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고 국민연금도 직장인에 비해 적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설문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율(26.9%)이 임금근로자(8.6%)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노후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효율적인 노후 준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자 신규 및 폐업자 수 추이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5)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 필요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 중의 하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은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퇴시기를 늦출 수 있는 자영업자야말로 확실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직장인의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직업 특성상 직장인처럼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 또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는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자영업자의 노후자금 마련은 여유자금을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에 저축 또는 투자한 이후 남는 돈을 생활비로 쓰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자영업 특성상 매출을 통한 현금흐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지출을 하는 등 체계적인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는 자영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특히 자영업이 정년에 상관없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향후 발생할 소득기회를 잃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일반 직장인에게도 적용되나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자영업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와 관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고 인적 자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장성 보험 가입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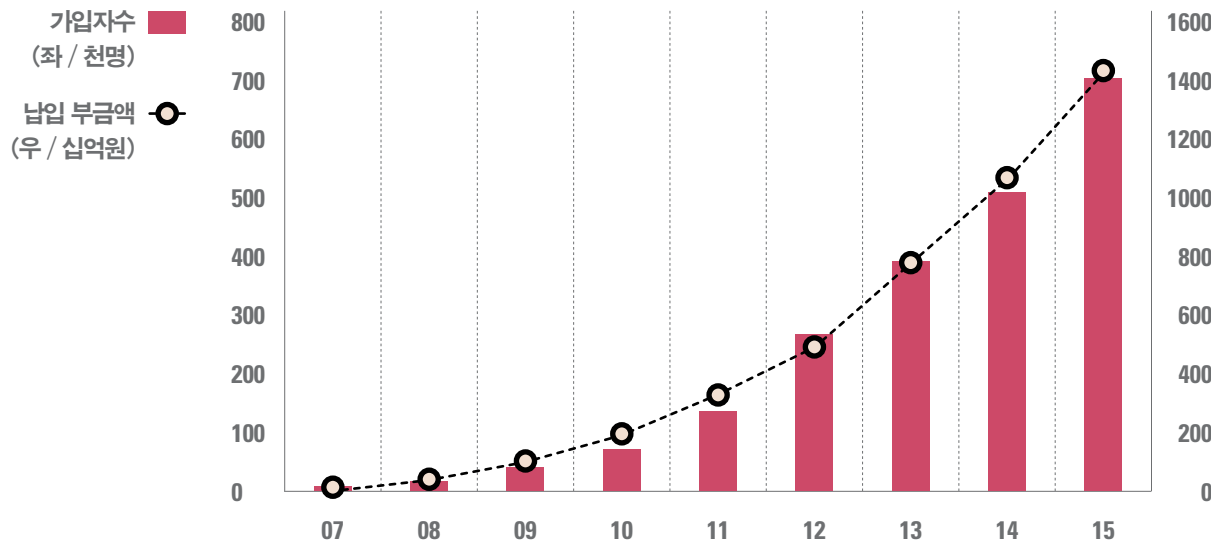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 활용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는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을 맡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약 68.5만명이 가입하였고 누적납입 부금액은 4.3조원을 돌파하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절세혜택,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복리이자를 통한 일시·분할금을 통한 목돈 마련, 무보증 저리 대출, 채권자 압류로부터의 보호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납부 부금액에 대해 연금저축 등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료 상해보험에도 가입된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또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연체가 없을 경우 무보증 저리대출인 공제계약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 2.1%의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폐업·노령·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을 때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할 경우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때 공제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년, 10년, 15년 중 기간을 선택하여 매월 또는 분기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약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22.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특히 가입 후 5년 내 임의 해지할 경우 추가로 부금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가 발생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자 수와 연간 납입 부금액



자료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제도 주요 내용

상 품	주요 내용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부금 납부방법	- 월납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300만원 한도) - 납부금액의 증액은 신청으로 월납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나 감액은 공제부금 3회 이상 납입 이후 신청가능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	
공제금 지급	시기	-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시, 가입자의 사망시 - 퇴임·노령 : 법인의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시,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시
	방법	-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 지급받는 경우 분할지급 가능 - 공제금이 5,000만원 이상이며 60세 이상일 경우 5·10·15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매월 또는 분기로 지급
세제혜택	-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압류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 -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공제계약대출	- 자격 :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이며 부금납부 연체가 없을 경우 - 대출한도 : 부금 납부금액 합계액과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적은 금액	
중도 해지시	-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함 (22%, 지방소득세 포함) - 가입후 5년 내 임의해지시에는 추가로 부금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원천징수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노후준비는 현재의 불안정한 소득흐름을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금융상품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보통 실제 소득보다 낮은 수 치로 소득신고를 하게 마련이고 이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도 당연히 적다. 결국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형편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를 통한 국민연금 임의납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장 훌륭한 노후준비 상품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급적 많은 국민연금을 납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 연금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하여 그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최소한의 현금흐름과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차이를 메꿔 넣을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이 필요하다. 사실 직장인에 비해 노후준비 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에 있어 개인연금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입해야 한다.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이러한 개연연금에는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펀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는 불규칙한 소득흐름에 따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개인연금상품의 70~80%가 선택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며 종신행 상품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다만 꾸준한 소득흐름이 보장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선택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1회 12개월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가 허용되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연금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소득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나 그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한편 개인연금펀드와 개인연금신탁은 기간에 제한 없이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한 후 노후설계준비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또 다른 노후준비 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는데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결국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 개인형 IRP를 합쳐 연간 1,000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 재투자자와 노후준비에 대한 적절한 배분 필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을
통한 추가납입,
개인연금 등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인 대비 부족한 노후준비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지원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흐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유동성까지 고려한 탄력적인 노후준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을 통한 추가납입, 개인연금 등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노후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시까지 안정적인 자영업 영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영업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기획, 재무, 세무 등 경영전반을 자영업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을 노후준비에만 쏟아 부을 수도 없다. 지속적인 자영업 영위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재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후준비보다는 재투자에 훨씬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노후준비는 그만큼 소홀해 질수도 있다. 결국 재투자자와 노후준비에 대한 적절한 배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자영업자는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노후준비의 기반이 되는 자영업 자체에 대한 조연과 노후준비와 자영업 재투자에 대한 적절한 자원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은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 탭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

step
2

>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반기 국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영국의 EU탈퇴(Brexit) 이후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의 확산 가능성, 중국발(發) 충격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능력,

국내 구조조정 압력과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강도 등 하반기 경제 리스크를 전망해본다.

**브렉시트(Brexit) 확산 가능성, 중국발 충격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능력,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대응 강도 등에 주목해야 할 필요**

최근 세계경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디레버리징 장기화, 신흥시장의 수출 및 제조업 성장 한계 등으로 저성장 기조(new normal)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친성장 정책기조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각국의 정책대응 역량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주요국 국가채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증발(helicopter money)과 같은 급진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성장 모멘텀 약화와 정책여력 소진으로 돌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악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첫째, 영국의 EU탈퇴(Brexit) 이후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의 확산 가능성, 둘째, 중국발(發) 충격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능력, 그리고 셋째, 국내 구조조정 압력과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강도 등이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의 경제위축 불가피하며,
EU도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

예상치 못한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가 술렁거리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한때 100엔 이하로 급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됐으며 영국과 EU의 성장이 급락하면서 세계경제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EU탈퇴 이후 무관세 비율 하락(영국 수출입의 무관세 비율이 89.3%에서 69.7%로 19.6%p 하락할 전망)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EU진출의 교두보 매력 상실로 인한 외국인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위축이 불가피하며, EU탈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EU 역시 영국의 수입물량 감소와 투자둔화 등으로 대영(對英) 수출비중이 높은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며, 분리주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

특히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 머니센터로서 영국의 위상 약화로 인한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세계 금리파생상품과 외환거래의 40%를 점유하며, BIS 보고은행 기준으로 전체 대외채권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머니센터이다. 따라서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입지 악화, 정치 불안 심화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인해 그간 영국을 교두보로 삼은 글로벌 머니의 포지션 재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브렉시트 여파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영국을 경유했던 글로벌 머니의 재편과정에서 국제 자금흐름의 교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충격의 3가지 시나리오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시나리오	정책 대응	세계 경제 영향	국내 경제 영향
Base 점진적 안정	- 영국-EU 협상 순조 - 국제 정책 공조 가시화 - 연준 금리인상 유예(연말 이후) - 한국은행 금리동결	- 영국의 성장을 추락 - EU 등 세계성장 약화 - 달러의 간헐적 강세 - 국제적 저금리 지속	- 국내 경제성장 약화 - 원/달러, 제한적 하락 - 시중금리, 반등제한 - 외국인 자금유출 제한적
Bad 통합유럽 붕괴 위험	- 영국-EU 협상 좌초 - 국제 유동성 공조 본격화 - 연준 금리동결 지속 - 한은 추가 금리인하	- 영국 및 EU 경기침체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심화 - 달러 강세, 유가 급락 - 취약시장 금융불안 심화	- 국내 경기 급랭 - 원/달러, 1,300원대 고점 - 시중금리, 일시 상승 - 외국인 자금유출 확대
Worst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 ECB 대응여력 소진 - 중국, 정책 여력 위축 - 연준 금리인하/양적완화 재개 - 한은 금리인하 확대	- 글로벌 유동성 경색 - 중국 등 세계경제 침체 - 달러 초강세, 유가 폭락 - 글로벌 금융위기 본격화	- 국내 경기침체 본격화 - 원/달러, 1,600원대 고점 - 시중금리, 일시 급등 - 국내 외화유동성 위기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이

분열의 길로 다가설 가능성 배제 못해

영국의 EU탈퇴를 계기로 경제 위기와 난민 사태로 공조가 악화되고 있는 유럽연합이 분열의 길로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문제이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우정당이 반EU 정서의 구심에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치적 일정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 5월 프랑스 대선, 내년 10월 독일 총선 등 주요국의 선거가 계속됨에 따라 민족주의의 발현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는 최근 급격한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EU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도 EU탈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유럽연합을 분열의 길로 내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나아가 오는 11월 미(美) 대선에서도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후보(공화당)의 당선 가능성을 이른바 ‘블랙스완(드물지만 파괴력이 큰 사건)’ 리스크 차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불안요인이다.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희박하지만,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연 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은 정책당국의 자본통제 강화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었고 주택가격도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실제로 ‘국유기업 · 국유은행 · 자본통제 시스템’ 등 정부의 ‘대응능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부진 등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성장세 둔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과도한 부채보유, 주요 산업의 과잉설비, 금융부문의 신용 리스크 등은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이행기 중국 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대외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 경제의 세계 GDP비중은 ’15년 15%(’95년 2%)에 이르고 있으며, 2000~2015년 세계경제 성장의 1/3을 중국이 견인해 왔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불안은 중국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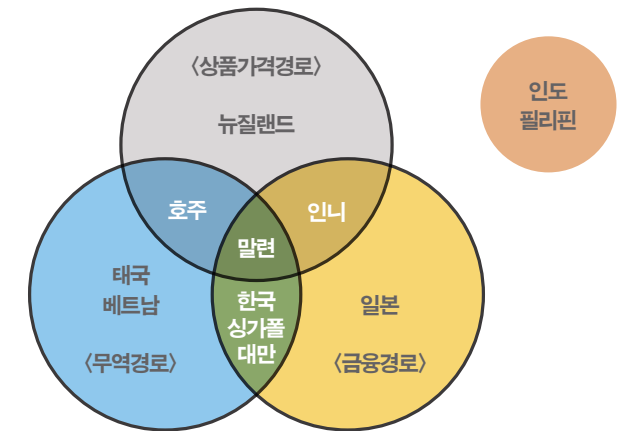
인도와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중국발 충격에 취약

중국발(發) 충격의 주요 경로로는 투자 및 수출과 관련된 무역 경로와 상품 경로가 있으며, 최근에는 단계적 자본 · 환율 자유화로 인해 금융 경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많은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며,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국가는 태국,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다. 중국과 홍콩에 대한 금융청구권이 GDP의 10% 이상이거나 글로벌 위험회피에 민감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인도와 필리핀 등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상품가격 · 무역 · 금융 경로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충격에 취약한 편이다.

중국발 충격에 대한 아시아국가의 취약성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 구조조정 진행시

생산축소 및 인력감축으로 파장이 클 듯

마지막으로 시각을 국내로 돌려보면 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고령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악화로 기업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조선, 운수(해운), 철강업 등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구조조정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산업의 총산출과 고용자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생산 축소 및 인력 감축 등으로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철강/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의 GDP 및 고용자 비중은 각각 7.1%, 7.9%에 달하고 있으며,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로 계산해 보면, 구조조정으로 철강/조선/해운 등의 생산이 각각 10%씩 감소할 경우 57.4조원의 생산 감소(총산출의 1.6%)와 10.6만 명의 고용감축(총고용의 0.55%)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구조조정이 이슈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악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수요공백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

한국경제는 2017년부터 고령화 진전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성장여력이 가파르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수요 공백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과 재정 지출 등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및 투자 주체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 모멘텀 악화로 추경 편성과 추가 금리인하,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이슈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기상도는 어떠할까.

수도권은 재건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방은 약보합 내지 하락세가 예상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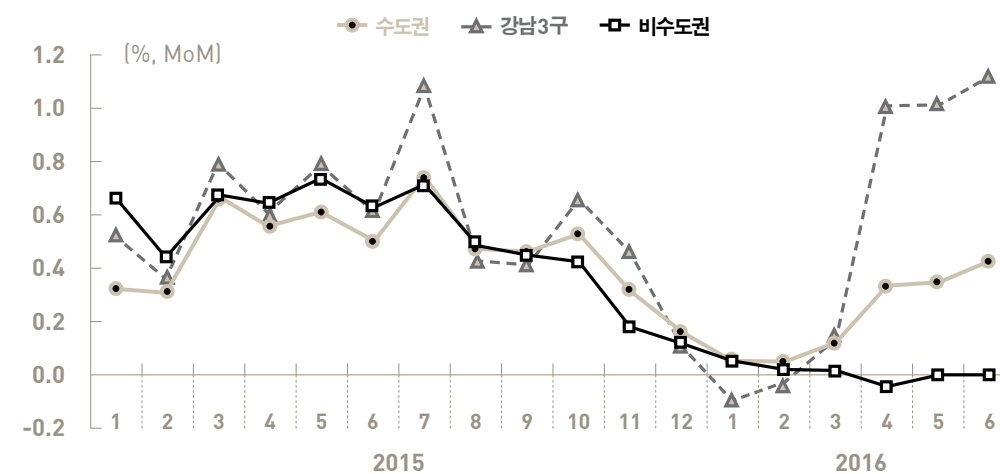
금리상승 지연영향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전망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엇갈린 행보

상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요약하면 '수도권 맑음, 지방 흐림'이라 할 수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평균 1.33%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8%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정체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4월부터는 꽤나 선전한 셈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3구에서는 4월부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으로 2015년 월간 최고 상승률(7월, 1.1%)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반기 0.03% 오르는데 그치며 상승세가 멈췄다. 5개 광역시가 0.22% 올랐지만 광역시 이외 지역은 0.26% 하락하였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는 셈이다.

월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자료 : 부동산114



금융규제 강화와 공급증가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

지방 주택시장의 성장이 멈춘 데는 5월 이후 주택 금융규제의 강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출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의무화를 골자로 2월 수도권에 먼저 적용되었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5월부터 지방 주택시장에도 도입되었다. 중고 주택 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부담이 커졌다. 6월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였던 분양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1인당 보증건수 2건 이하, 보증한도 6억원(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으로 공사의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면서, 분양시장의 투자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올해 1~4월 아파트 거래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이 5.7%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20.1%, 대구는 23.4%에 달했다. 지방일수록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구매가 많았다는 뜻이다. 한편 상반기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에서 작년 같은 기간의 85% 가량에 불과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작년보다 10%나 더 많았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방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하반기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밀집지역 중심의 상승세,
지방에서는 하락세 전망

하반기 흐름도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 요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강남3구, 양천구, 과천 등 재건축 밀집지역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주변 파급효과도 크지 않아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증가, 가격 하락 등이 뚜렷한 지역도 있는 만큼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근접성과 개발호재 등에 따라 시황이 차별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방은 약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에 더해 조선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불안도 심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고 예상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었지만, 지방은 1명에 그친 바 있다.

강남발 상승세
타 지역 가격 견인은 어려워

브렉시트 등으로 금리인상 기대가 약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을 훌쩍 넘어서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 일간지의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점포형 단독주택과 도심 소형빌딩을 하반기 유망상품으로 꼽은 바 있다. 다만 기업실적과 자영업 업황이 비교적 부진해 상가와 빌딩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임차 수요가 탄탄한 곳에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2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유액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업감시인 심사필 2015-광고-3054(2015.09.18)

덴마크, 로봇 복지에 주목하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에 ‘로봇’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80세 이상 고령자의 요양서비스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는 고령자인구의 자택생활을 돕기 위해 현지 지방정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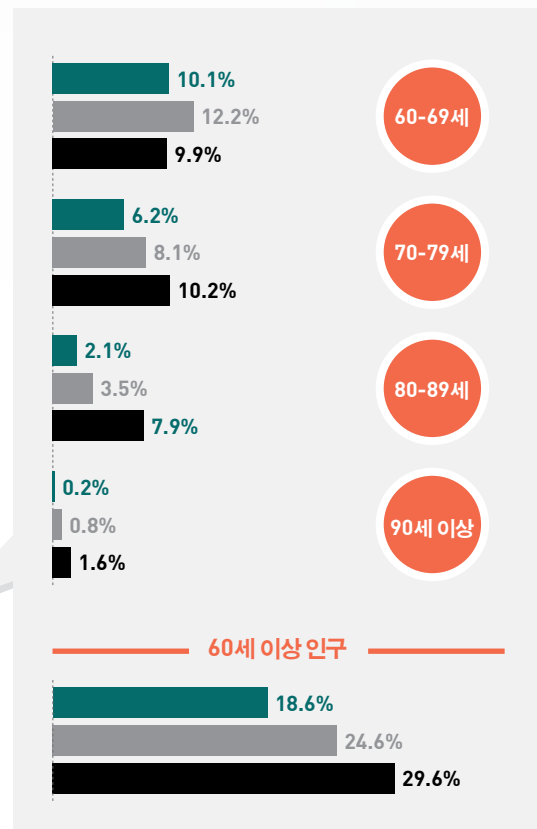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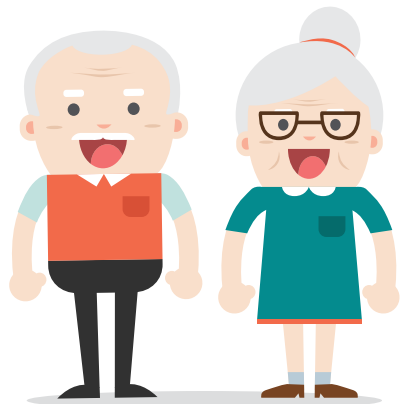
앞다퉀, 주방용 로봇, 로봇청소기 등을 구매하고 나섰다. 덴마크의 로봇 복지 현황을 들여다보자.

최근 덴마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덴마크 노인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25% 미만이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약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3%에서 9.5%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덴마크 60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

■ 1975
■ 2015
■ 2050(예상)

출처:
덴마크 노인협회
(Aeldresagen)



덴마크의 대표적인 로봇 복지 제품들



주방용 로봇 -
Bestic AB



천장부착 승강보조장치 -
Johl Human Care ApS



로봇 청소기 -
Irobot



GPS 기구 -
Stella Care



욕실 및 화장실용 전자의자 -
Elexo



디지털 비데 -
Geberit AquaClean

‘홀로 노인’ 돕는 로봇 인기 높아져

덴마크 노인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스스로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요양서비스보다는 자택에서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덴마크는 홀로 지내는 노인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을 돕는 로봇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erlingske Nationalt에 따르면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덴마크 지방정부는 노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로봇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약 90%에 달하는 덴마크 지방정부가 로봇 청소기 구매의사를 밝혔다.

로봇으로 간호 인력 줄인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로봇 구매 확대 수요를 견인하기도 했다. 실제로 덴마크는 2014~2015년까지 49개의 덴마크 지방정부는 로봇을 통해 간호 인력을 줄여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 분야 직원 수 변화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2011년 3만3,304명에서 2015년 2만4,199명으로 줄어들었다. Politiken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는 지방정부가 직접 구매해 노인에게 무상 보급하기보다 노인이 직접 구매 시 개별 평가를 통해 구매가의 절반 혹은 전부를 보조금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정부조달을 통해 제공되고, 개별가정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보조금을 제공해 지원하고 있다.

느린 삶을
되찾는
도예하는
삶



도자기를 빚는다는 것은 인생을 빚는 것과 비슷하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 않고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비로소 멋진 작품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내 손으로 흙을 손수 빚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도자기는 손이 아닌 마음으로 빚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 나의 인생을 빚는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초보 도예가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느림의 미학을 경험하며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고, 더불어 옛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도예는 추천할 만하다. 영화 ‘사랑과 영혼’처럼 낭만적인 경험도 덩이다. 세상에서 단 하나! ‘흙으로 빚어보는 나의 빚깎들’. 흙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보자.

도자기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인터넷에 '도예공방'을 검색하면 다양한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종류도 접시나 그릇, 다기 등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보통 일일 체험부터 주 1~2회 성인반을 운영하는 곳도 많으며 주로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예나 도자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뭐니 뭐니 해도 광주요 도자문화원을 추천한다. 도자의 도시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광주요 도자문화원은 장작을 때는 전통 나무 가마와 전기&가스 가마를 모두 구비했을 만큼 규모 있는 곳으로, 분청사기의 장식 기법을 비롯한 전통 도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Tel. 031-631-8032

도예 지도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도예연구소 ‘마인(MINE)’에서는 한국 도예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미·직장인반, 한국 도예 지도사 과정 특강 체험반, 공방 창업반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개설된 한국 도예 지도사 자격 과정은 올해 3월 제2기 자격증 과정을 시작했다. 지도사 과정인 만큼 도예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초부터 초급, 중급, 장식기법, 유약시유 등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주 1회(월 4회) 총 10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필기, 실기검정과 전시발표회도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격증 발급 후 취업 및 공방 창업 시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Tel. 032-325-2114

- 초보자가 도전하기
좋은 도자기 제작 기법

코일링 coiling - 흙가래, 혹은 흙타래 성형법이라 한다. 흙을 마치 국수 가락처럼 길게 균일한 두께로 민 다음 이를 돌돌 겹쳐 쌓아 올라가면서 형태를 잡아 나가는 도예 기법.

슬립 캐스팅 slip casting - 기술을 만드는 원형 석고 틀에 흙물을 부어 주입 성형하는 기법이다. 똑같은 모양의 작품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는 도예 기법.

핀칭 pinching - 꼬집는다는 뜻의 핀칭 기법은 점토 덩어리를 꼬집듯이 성형하는 기법으로 작은 그릇과 오브제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은 기법.

판 작업 - 시각형 모양으로 만든 점토판을 서로 붙이거나 구부리거나 해서 도자기의 형태를 만드는 기법이다. 흙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평평하게 만든 흙판 위에 자신이 표현하고픈 문양이나 그림을 그림. 벽걸이나 접시로 활용이 가능하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오프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온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온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은 상호 재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모금융기관이며, 하나 SK카드들은 부모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형의 실사판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